

광주-무안공항 해법 정부 발빠나

국토부 신규투자 없이 통합 원칙만 되풀이...시·도 합의에 떠넘겨

국토해양부가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의 통합방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광주공항의 국내선 이전 및 공항 통합시기는 호남고속철도 개통시기와 함께 지자체 간 합의 등을 감안해 검토하기로 명시함에 따라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관련기사 3면>

이런 가운데 성장세에 있는 다른 지역 공항과는 달리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이용객은 감소 또는 정체 상태이고, 2015년까지 이들 공항에 대한 정부의 신규투자 계획도 없어 서남권 공항의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광주시와 전남도의 힘겨루기가 결국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국가기반시설의 기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4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제4차 공

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2011~2015)에 따르면 광주공항의 국내선 기능을 무안으로 이전해 무안공항과 통합하고,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공항은 중국 등 근거리 국제선 중심으로 취항을 확대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윽고 지난 제3차 계획과는 달리 통합시기에 대한 기본방향에 '지자체 간 합의와 호남고속철도 개통시기(2014년) 등을 감안하여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신 무안공항 지원 후 통합'을 주장해 온 광주시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하더라도 통합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해야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관계자는 "제3차 계획에서도 명시는 안 했지만 양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는 기본적인 전제는 있었다"며 "무안공항의 경우 근거리 국제선을 운항하는 데 현재의 시설로도 충분하고, 광주공항은 장기적으로 통합될 공항이라는 점에서 각각 신규 투자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광주시와 전남도가 어떠한 형태로든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을 위한 협의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공항 통합에 관한 정부의 기본방향이 바뀌지 않은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다만 단서조항은 그동안 광주시가 제기해온 현실적인 문제가 반영

된 것으로, 향후 시·도 간 상생을 위해 적극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무안공항으로 광주공항을 통합하라는 정부의 정책이 변화가 없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것으로 환영한다"며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공항 국내선 이 조속히 이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광주공항의 2010년(추정치) 이용객은 136만4000명, 무안공항은 10만7000명(국내선 2만4000명, 국제선 8만3000명)으로, 무안공항 개항 전인 지난 2006년 광주공항의 이용객 150만5000명보다도 적어 이미 지역 공항수요가 감소세에 접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백신 접종이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6개 시·도로 확산하자 전남도가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4일 전남·북의 경계인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한 방역초소에서 통행 차량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르포-전남·북 경계 담양 구제역 방역통제소가 보나

“청정 전남 사수하라” 비상한파 속 24시간 총력 방역

전남·북 경계지역인 담양군 금성면 방역 통제소에서 만난 조귀태(48)씨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다. 영하 날씨에 적지 않은 눈까지 내리면서 도로에서 전남·북을 오가는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고 소독 여부를 지켜보느라 녹초가 됐다. 얼굴과 손은 추위로 빨갛게 댔고 예상 소독역이 될 방역복은 축축히 젖어 있었다. 조씨는 “두껍 세겹 양말을 걸쳐 신어도 소독역에 금세 젖는다”고 말했다.

담양군이 공무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민간인들로 방역반을 꾸리면서 조씨는 지난 23일 투입됐다. 그래도 불안감에 가슴 졸이는 축산 농가들을 생각하면 힘든 내색도 할 수 없다. 전남도 축산정책과를 비롯한 도내 시·군 축산행정 공무원들도 극도의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부터 도와 시·군 경계에 76개의 방역초소를 설치한 뒤 매일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등 초비상에 들어가면서다. 세밀 휴가는 커녕 주말·공휴일에도 출근해 담양 시·군의 방역초소를 새벽까지 돌아다니다 귀가한 게 한 달이 넘었다.

최근에는 폭설과 한파까지 계속되면서 소독역이 도내에 얼어붙지 않도록 염화칼슘을 뿌리고 제설 작업까지 병행하다보니 피로도는 한층 심해졌다. 전남도가 구제역의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다. 특히 구제역이 6개 시·도로 확산하고 돼지도 구제역 백신 접종 방안이 검토되는 등 심각해지자 자칫 지난 1934년부터 이어온 '청정 축산 지역' 이미지가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도 경계에서의 차단 방역에 총력을 쏟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1일 가축 시장 폐쇄를 시작으로 도·시·군 경계에 방역초소를 설치해 집중 방역에 들어가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한 발 앞선 조치를 실시한 데 이어 앞으로 1~2주가 구제역 전남 유입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구제역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위기경보 단계가 최상위인 '심각(Red)'으로 격상됨에 따라 축산물에 대한 위생 및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자체 방역초소를 추가로 72개 늘리고 하루 500명의 인력을 동원해 24시간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 긴급방역비와 예비비 등 79억원을 긴급 확보해 방역초소 운영에 필요한 소독 약품, 유류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도내 591개 공동방제단과 방역 장비

1730여대를 총동원해 매주 농가 일제소독을 벌이는 등 강력한 방역대책을 추진중이다. 24시간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가동해 운영하면서 예상외로 427명을 동원해 축산농가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고 농가들의 송년 모임이나 타 지역 방문 등의 자제도 요청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우리가 이 정도 축산 농가들은 어떻겠느냐”면서 “아무췌록 더는 확산하지 않고 빨리 상황이 진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구분	입회금	회원특전	모집인원
■ VIP정회원	3억3000만원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동반3인 연2회 그린피 면제, 초과시 그린피 50%할인), 월 8회 주말부킹 보장(1월 1회),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지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무기명카드 1매발급: 그린피 50%할인	20명
■ 해피정회원	1억원	공통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선택 - A형, B형, C형 중 선택(1) A형 지정회원 1인 준회원대우(단,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할인혜택, B형 지정회원 미션택시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우대혜택, C형 무기명카드 1매: 그린피 50%할인(연 6회 사용, 1월 1회)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혜택 없음, 지정회원 없음.	49명
■ 주중/평일회원	3300만원	공통 - 정회원 1인 그린피 70%할인	50명

* VIP회원 및 해피정회원은 광주은행 담보대출 70%선 (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 가능)
* 공개모집 인원 초과시 추첨에 의하여 회원선정.
가입문의 Tel. 061-330-5001~4 Fax. 061-330-5009

알림 '테마칼럼' 필진 바뀝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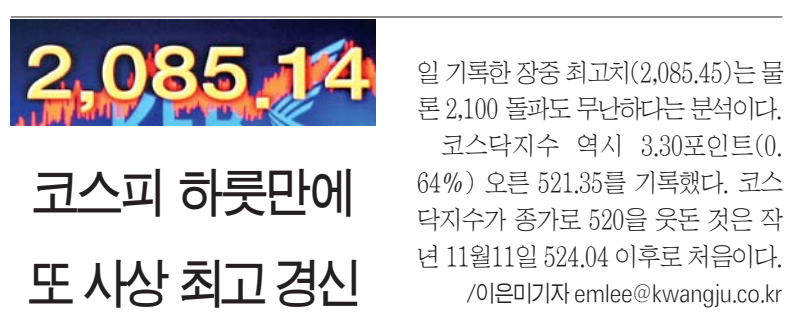
매주 금요일 연재하는 '테마칼럼'의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새 필진은 도서 출판, 신재생에너지, 문화 상상력, 도시발전 등 4가지 테마의 세계로 독자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변함없는 성원 바랍니다. <가나다순>



- ◇강상호(54) 사계절출판사 대표
 - ▲한국신학대, 이화여대 대학원 기독교학과 석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출판잡지 석사 ▲사계절출판사 편집부장 ▲(사)한국출판인회의 이사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위원 ▲(재)대한출판문화협회 이사
- ◇문채주(52) 목포대 전기공학과 교수
 - ▲전남대 전력발생공학과, 동대학원 박사 ▲목포대 산학연중소기업 기술지원센터장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정책자문위원 ▲전남도 녹색에너지지원위원 ▲전남도 녹색성장위원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 ◇박기현(48)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조교수
 - ▲연세대 불어불문과, 동대학원 불어불문과 석사, 파리 8대학 불어불문학과 문학박사 ▲캐나다 몬트리올대 상호매체 연구소 초청교수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지역문화연구센터 소장
- ◇유병권(50) 국가건축정책기획단 부단장
 - ▲전남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미시간주립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석사,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 ▲건교부 주거복지과장, 도시정책팀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이사관

5월 광주인권포럼 수지·만델라 초청

광주시가 올해 5월 열리는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아웅산 수지 여사와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톨라 다 실바 전 브라질 대통령 등 세계적인 명사들을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4일 “5월 개최되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세계적인 인권운동가들이 광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5·18 기념재단과 협의해 접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올해 5·18 31



코스피 하룻만에 또 사상 최고 경신

새해 주가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코스피지수가 하루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한국 주식시장의 새 시대를 활짝 열었다. 신묘년 첫 거래일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코스피지수는 4일 전날보다 15.06포인트(0.73%) 오른 2,085.14로 고점을 더 높였다. 이 같은 오름세라면 2007년 11월1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www.happinesscc.com

다가는 세해에도 히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며 새해 **행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 위치: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락리 1219 번지

■ 코스규모: 총 27홀 Par 108(전장 9,575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 VIP정회원

- 입회금: 3억3000만원
- 회원특전: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동반3인 연2회 그린피 면제, 초과시 그린피 50%할인), 월 8회 주말부킹 보장(1월 1회),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지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무기명카드 1매발급: 그린피 50%할인

* 계약시: 정회원만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완납시: 모든 특전제정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납입후 2개월내 잔금완납

■ 해피정회원

- 입회금: 1억원
- 회원특전: 공통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선택 - A형, B형, C형 중 선택(1) A형 지정회원 1인 준회원대우(단,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할인혜택, B형 지정회원 미션택시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우대혜택, C형 무기명카드 1매: 그린피 50%할인(연 6회 사용, 1월 1회)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혜택 없음, 지정회원 없음.

* 계약시: 정회원만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완납시: 모든 특전제정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납입후 1개월내 잔금완납

■ 주중/평일회원

- 입회금: 3300만원
- 회원특전: 평일회원 1인 그린피 70%할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납입후 1개월내 잔금완납

* VIP회원 및 해피정회원은 광주은행 담보대출 70%선 (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 가능)
* 공개모집 인원 초과시 추첨에 의하여 회원선정.

가입문의 Tel. 061-330-5001~4 Fax. 061-330-5009